

특집 : “변환기, 새로운 도서관상을 모색한다”

⋮

20세기 도서관의 역할 변화



● ● ●

최 충 식

백석대학교 백석학술정보관 과장
cschoi@bu.ac.kr

들어가는 말

21세기 지식기반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문화적 창의력과 지식, 정보의 양이 개인이나 국가 역량의 바탕이며 도서관은 지식정보의 산실로서 앞으로 그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는 오랜 시간을 두고 꾸준한 생산과 체계화, 활용을 통한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순환을 통하여 축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지식자본을 가질 수는 없다. 유효한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확보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가에 모든 개인과 국가의 현재와 장래가

달려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지식혁명 시대에 맞추어 도서관의 역할도 적절히 바뀔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도서관법을 새로이 개정한 바, 그에 따른 도서관의 역할 변화를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도서관법에 의거하여 대학도서관은
그 모습을 달리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부여 받게 되었다.

도서관 관련 법규 변화에 따른 도서관의 변화

21세기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심화되어 전자책과 무선통신망의 확장으로 디지털 및 미디어 융합이 가속화되는 시대이다. 이에 더해 미국과의 FTA 체결을 하는 등으로 우리나라의 시대 환경은 급변하는 중이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금년 4월 「독서문화진흥법」과 「도서관법」을 새로이 시행하게 되었다.

새로운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의 분리, 도서관 종류의 변화, 도서관법 적용범위의 신설, 도서관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의 규정, 지방자치제도 하에서의 지역의 도서관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지역대표도서관과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규정,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이자 도서관정책의 집행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을 정비

하고,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 업무 수행을 위해 도서관 연구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같은 도서관 관련 법규의 변화는 곧 대학 도서관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었다.

“대학의 중심은 도서관이다” 이 말은 도서관 관계자들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오는 내용이다. 도서관이 발전해야 이를 이용하는 교수들이 더 훌륭한 연구를 하며 학생들도 훌륭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 도서관에 근무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이를 위해 오늘도 이용자의 발전이 기관의 발전이라는 사명 하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에 더해 새롭게 개정된 도서관법에 의거하여 대학도서관은 그 모습을 달리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부여 받게 되었다. 대학도서관은 단지 한 대학의 도서관일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서비스도 담당해야 할 것이며 지역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사명을 다하려면 도서관의 분위기를 이용자와 서비스 위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도서관이 가벼워 보여야 한다. 학생들이 도서관 서가에 쌓여 있는 엄청난 자료의 중량감에 눌리기 전에 가벼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1) 도서관의 이미지

무거운 이미지를 벗어버려야 한다. 도서관은 칙칙한 곳, 책만 있는 곳, 연체된 책 반납하라고 독촉하는 곳 등 이런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산뜻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 자료실 안과 밖으로 소파 등을 마련해서 딱딱한 강의실 의자에 식상한 이용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료실에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면 마음 편하게 음료수를 마시며 간간히 잡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도 이용자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자료실 조명도 밝게 해서 책으로 둘러싸여 있는 답답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바꿔야 하겠다. 성균관대학교 네이버 카페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요즘의 학생들은 밝고, 깔끔하고 편한 그런 도서관을 원한다.

2) 이해하기 쉽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도서관 관련 용어의 사용

‘상호대차서비스’, ‘SDI서비스’, ‘이용자교육’ 신입생들이 과연 이런 도서관 용어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계속해서 알려주고 홍보한다 해도 이용자의 입에서 ‘상호대차서비스’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한다. 단어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용어를 순화해야 한다. 이용자 교육이란 말도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게 들릴 수 있다. 도서관에서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들에게 도서관은

무거운 이미지를 벗어버려야 한다.

도서관은 칙칙한 곳, 책만 있는 곳, 연체된 책 반납하라고

독촉하는 곳 등 이런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산뜻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을 하는 입장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친근한 느낌을 주며 접근하기 쉽도록 도서관 관련 용어를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3) 도서관 서가의 접근 용이성

자료실 서가에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들만 배가해야 한다. 서가에 100권의 자료가 있다고 하자. 그중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20권이라면 대다수의 나머지 80권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도서관에는 불필요한 책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책 40권을 서가에서 빼내었다고 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서가의 60권 책들 중에 이용자의 눈에는 그들이 원하는 책 20권이 더 눈에 잘 보이게 될 것이며 나아가 도서관에 필요한 책이 많다고 생각할 것이다. 학교의 정책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서가에서 불필요한 자료들을 뽑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4) 도서관 사서의 역할 강화

사서의 전통적인 역할이 정보의 관리와 제공업무였다면 디지털도서관의 사서는 엄청나게 증가한 정보를 평가, 관리하면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효율적으로 검색,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유능한 정보전문가로 육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서는 만능이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용자들에게 사서는 맥가이버가 되어야 한다. 원하는 자료를 척척 찾아주고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서가 이용자들이 바라는 사서이다. 이용자들이 사서에게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래서 사서는 너무 열심히 일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이용자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질문을 하고 싶어도 바쁜 일에 혹시나 방해가 될까 염려해서 그냥 돌아가는 학생들도 있다. 일은 하되 이용자와 눈을 마주치고 언제라도 환영한다는 눈빛으로 대한다면 이용자들도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사서에게 다가올 것이다.

5) 도서관 환경의 변화

대학의 중심이 도서관이라면 그 도서관의 중심은 이용자며 대학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렌즈가 피사체에 다가가듯 Zoom-in 형, 즉 도서관

이 이용자에게 다가가는 형태로 도서관의 모습이 변화해야 한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이용자에게 가벼운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도서관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불필요한 자료들은 과감하게 서가에서 퇴출시켜 서가를 신선한 느낌을 주는 상태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 관계자들은 자기 개발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용자의 친구가 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도 공동시설 사용 예절과 전자 정보 접근 등에 대한 적절한 이용 교육을 실시하여 도서관 이용 시에 학생들끼리나 도서관 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상호 쾌적하고 편리한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중심이 도서관이라면 그 도서관의 중심은 이용자며 대학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렌즈가 피사체에 다가가듯 Zoom-in 형,
즉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다가가는 형태로 도서관의 모습이 변화해야 한다.

맺는 말

도서관은 이제 책을 소장하고 이를 찾아오는 이용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안정적이고 고정된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와 개인의 삶의 현장에 역동적으로 개입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찾아다니는 움직이는 도서관, 열린 문화 공간으로 모습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21세기 유비쿼터스 지식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새롭게 개정된 도서관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도서관을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사서의 시대적,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여 확고한 도서관봉사를 이끌어 냄으로써 새 시대의 중심기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